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9일 화요일 음 4월 27일 (4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16℃, 낮 최고 기온은 19~22℃의 분포를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0~4.0m로 일겠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Weather (강수 확률, 구름). Rows show 10% probability for rain and 20% for clouds.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녘, 문때) and Temperature (기온). Rows show times and temperatures like 05:31, 19:30, 08:48, 21:26.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구름 많음, 맑음).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생활·안전, 식중독, 야외) and Status (정보, 관심, 높음). Rows show various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월드뉴스

미스터리 우주선 X-37B 다시 지구 궤도로

미군 비밀 비행체로 주목



지구 궤도로 다시 발사되는 X-37B.

우주왕복선을 닮은 미군의 첨단 드론 'X-37B'가 17일(현지시간) 지구 궤도로 다시 발사돼 6번째 임무 수행에 나섰다.

비밀 비행체로 주목을 받아왔다. 바버라 배럿 공군장관이 X-37B의 임무 일부를 공개했지만 실체를 둘러싼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르면 X-37B는 싸이타 기타 물질 등에 대한 우주 방사선 영향과 태양열을 지구로 전송할 수 있는 극초단파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미공군사관학교 소령 연구위성 '팰컨셋-8'을 배치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X-37B는 지금까지 총 비행 날짜가 2865일에 달하며, 총 비행 거리는 약 16억km에 이른다.

X-37B는 발사 일정에서 하루 연기된 끝에 이날 오전 9시14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 인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의 41번 발사장에서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ULA)의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체인 X-37B의 공식 명칭에는 '궤도시험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태양광을 동력으로 이용하며, 직전 임무수행 때는 779일 17시간51분간 지구궤도를 비행한 뒤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귀환했다. 미국 공군이 직접 운용하는데다 지구궤도에서 장기간 비행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공개되지 않아 미군의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문화광장



김정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대구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정부가 해명하느라 애쓴 일이 있었다. 봉쇄라는 말이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는 트라우마가 강하기 때문에 민감한 여론이 형성됐다. 지역 봉쇄 최근의 사례로는 40년 전인 1980년 광주를 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72년 전의 1947년부터의 제주 4·3이 있다. 제주 4·3은 어려운 과제였다. 단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렸을 적에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차 대화가 격

슬픈 역사의 예술적 승화 '시네 광주 1980'

렐해지면 어느 순간 어른들이 일본어로 대화를 하던 상황이었다. 어떤 분은 4·3 시기에 경찰에 근무했고, 공무원도 있었으며 그래서 각각의 입장이나 시선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어떤 명예를 떼지 않으려는 어른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4·3이 예술작품으로 대중에게 많이 노출된 경우는 1978년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 삼촌', 1992년에 방송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재일작가 김석범이 쓴 소설 '화산도'(우리나라에는 2015년에 출판됐다), 그리고 2013년 개봉된 오명 감독의 영화 '지슬' 정도로 희미하다. 그런 이유가 제주가 육지에서 멀고, 인구가 적고, 세력이 작아서만은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있다고 본다. 다행히 4·3 희생자와 목격자에 대한 미시적 접근으로 그들의 증언을 기

록하는 구술사적 연구와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는 4·3 문학상이 우리의 슬픈 역사를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주말, MBC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나는 기억한다'와 영화 '백식 운전사'의 모티브가 된 독일 특파원 위르겐 힌츠페터가 촬영한 광주 민주화운동 미공개 영상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TBS의 '5·18 힌츠페터 스토리', 80년 당시 일본 NHK가 취재한 영상, 일본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등 광장에 관한 영상기록을 다룬 KBS의 '광주 비디오키오' 등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 TV '시네 광주 1980'에서는 광주를 배경으로 한 장편 상업 영화부터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등 60여편을 온라인으로도 상영한다. 이 행사에서는 광주를 다룬 최초의 단편 한국 영화로 광주에

미시적 접근으로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같은 감독이 1988년에 만든 광주의 탈영병을 다룬 '황무지'가 상영되며, 5월 광주의 도청에서의 일을 다룬 영화 제작소 장산꽃대의 '오 품의 나라'(1989),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1990) 등 30여년 전의 독립 장면 영화들과 최근의 상업 영화들도 상영한다. 장년층에게는 존재한다는 풍문은 들었지만 볼 수 없었던 동시대의 영화 운동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기회이고, 젊은층에게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치열했던 한국사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서 허구보다 더 극적인 제주 4·3 희생자와 관련자들의 사연이기에, 그리고 참혹한 역사적 사실이기에 일부러 회피하려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나. 먼 훗날 제주 역사와 삶에 대한 훌륭한 예술작품이 나올 수 있는 토대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많이 확보하고 기록하는 작업이다.

열린마당

제주 용암해수산업에 대한 이해



부춘성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물산업팀장

용암해수는 바닷물이 제주의 독특한 화산암반층에 스며든 것으로, 이 자원의 특성은 현무암층을 스며들면서 불순물과 위해 물질이 걸러져 청정하며, 다량의 미네랄을 머금고 있어, 기능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자원은 취수한 만큼 다시 암반층으로 해수가 스며들게 되어 고갈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먹는물관리법'에 '염지하수'라는 이름으로 정의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염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자원에 준하는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에게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고 있었으나,

가정의 달 5월을 생각해 보면서



유영택 제주시 총무과

2008년 예외적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한해 용암해수 제조·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2011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일대에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를 조성했고, 단지에 입주한 민간기업이 용암해수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허가 지역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염지하수는 제주의 공공자원으로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자원임에 틀림없다. 한편 보석도 원석을 가공해야 고부가가치의 귀금속 제품으로 만들어지듯이 일반 지하수의 수심배에 이르는 제주의 염지하수도 적절한 활용돼야 제주도민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오리온제주용암수는 용암수 혼합용도 제품의 판매방식과 물량제한을 전제로 한 국내시판에 잠정 합의했다. 특히 판매이익의 20%를 제주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폭넓은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제주의 공공자원을 이용한 성과로 제주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기반산업이 되길 기대해 본다.

가정의 달 5월을 생각해 보면서. '공수래공수거'라는 말이 있다. 손에 들고 온 것이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서 죽어갈 때도 빈손으로 죽어간다는 의미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초연하게 삶을 살라는 말이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에 맞추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나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좋지 않은가 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도리·정·감사 등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 안되고 시간에 얽매는 현대인의 특성상 압박感和히 이로 인한 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이번 5월을 맞이해 하늘같은 부모님의 은혜, 가족, 은사님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본다. 많이 알고 있는 불교용어 중 '공수

제주시정 소식

- 2020년 드론으로 바라본 제주시 동영상 공모
공모기간 : 2020. 5. 18. (월) ~ 2020. 9. 29. (화) 18:00
접수기간 : 2020. 9. 14. (월) ~ 2020. 9. 29. (화) 18:00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5명 이내)
주제 : '드론, 제주시 아름다움을 푼다'
내용 : 천혜의 자연환경, 뛰어난 문화예술, 정겨운 사람들 등제주시의 아름다움과 숨은 비경을 담은 자유주제
응모방법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y9703034@korea.kr)
문의 : 제주시 공보실 (☎064-728-2942)

여름철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모집

- 모집기간 : 2020. 5. 11. (월) ~ 2020. 5. 26. (화)
채용기간 : 2020. 7. 1. (수) ~ 2020. 8. 31. (월) [2개월]
지원자격 : 만60세 이하 신체 건강한 제주도민
\*안전관리자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Table with 3 columns: Category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보트요원, 보건요원), Personnel (인원), and Remarks (자격요건). Rows list various safety roles and their requirements.

이은 만큼 보상받는 '풍수해 보험' 가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관내 단독주택
신청기간 : 연중 (집중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원혜택
구분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상금(단독주택 80㎡, 90% 보상형) 비고
전과 12,000천원 72,000천원 면적 90%100㎡면
반과 6,500천원 36,000천원 전과의 50%
소과 - 18,000천원 전과의 25%
집수 1,000천원 4,000천원 50㎡이하

제주도정 소식

- 2020년 6월30일까지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는 2021년도 FTA기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업 및 납부 문의 : 지역 농·김철 또는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감귤진흥과 ☎710-3194

주간농업농촌소식

- 주간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노지감귤: 텃밭이형, 궤양병,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충 방제
노지감귤: 온도관리, 환기 철저, 진딧물 등 병해충 방제
노지감귤: 5-7월 간격으로 20톤/10a
노지감귤: 2차 웃거름 주기, 취과 관리, 잿빛곰팡이병 방제
노지감귤: 8월 집중 추수농업 노지재배 정식 5월 하순까지 완료